소재지 규모 정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건강관련 특성이 주관적건강에 미치는 요인 : 건강도시를 중심으로

문지영*, 남은우, 진기남**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건강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지 규모정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건강관련 특성이 주관적건강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본 조사의 대상은 5개 지역으로서 서울 소재 대도시 2개 지역(2009, 2010), 경기도의 중소도시 1개 지역(2008), 경북의 도농 복합 중소도시 1개 지역(2008), 전북의 농촌 1개 지역(2009)이었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2,650부 이었으며, 이 중 수거된 설문지 2,515부에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42부를 제외한 2,47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에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역, 건강관련 특성,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주관적건강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연구결과

소재지별 주관적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연령 증가는 주관적건강과 부적(-)관계에 있었고($p<.05$), 거주기간이 길수록($p<.05$), 규칙적 운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p<.05$)에는 주관적건강과 정적(+)관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중소도시 응답자는 남성인 경우($p<.05$), 전문대졸 이상 교육수준인 경우($p<.05$), 규칙적 운동을 실천하는 경우($p<.001$), 주변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경우($p<.05$)에 주관적건강과 정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셋째, 대도시의 응답자는 남성인 경우($p<.01$), 모임 참여를 하는 경우($p<.05$)에 주관적건강과 정적 관계를 갖고, 직업이 농·자영업자인 경우($p<.01$), BMI가 증가할수록($p<.01$),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p<.001$),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p<.01$)에 주관적건강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 결론

지역의 규모 정도가 주관적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강도시사업을 개발함에 있어서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은 운동 사업이 유의한 것에 근거하여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신체 건강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또한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비만 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자살 충동을 해소할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모임참여를 증대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주민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면, 주민의 주관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